

Grace 은혜



YouTube

주일예배
1부 오전 7시 30분
2부 오전 9시 30분
3부 오전 11시 30분
4부 오후 1시 30분
5부 오후 3시 30분
금요성령집회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새벽기도
매주 월~토요일 오전 6시 30분



2023
FEBRUARY
2
vol.234

W

WORSHIPING CHURCH
3-5p

O

OIKOS CHURCH
8-9p

R

REACHING OUT CHURCH
14p

L

LIFE GIVING CHURCH
15p

D

DISCIPLING CHURCH
10-12p

수고했Day

토닥토닥 : Feat. 담임목사님

하루하루 쌓여가는 피로. 지친 여러분에게 담임목사님이 찾아갑니다.
아빠·엄마·자녀의 퇴근길, 하룻길을 함께하며 이야기 나누는 특심!
<특별한 심방> 성도님들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신청자:

연락처:

사연:

* 작성하신 신청서는 사역자에게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 제자 되는 교회” 2023 표어를 모두 함께 외치며 송구영신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최병락 담임목사님은 모든 성도들이 “알파와 오메가” 우리의 시작이었으며 마침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음을 고백했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서는 끝과 시작이 만나는 정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나눠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송구영신예배 귀한 말씀 내용을 요약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 삶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던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함께 마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곳 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오메가의 시간인 이 때 까지 우리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빌 1:5~6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인생은 시작도 지켜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고 싶으신 분은 복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새해의 시작은 복음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복음을 위해하고 있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을 특별히 지켜주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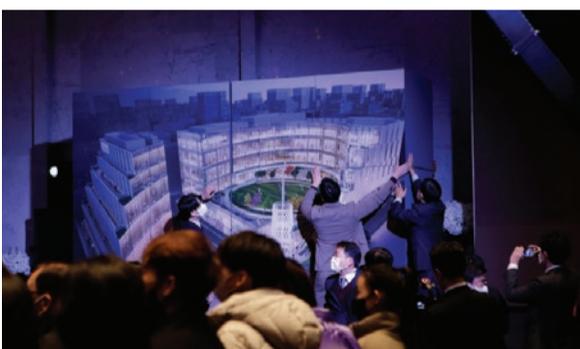
두 번째, 삶의 과정가운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작만 되시고 끝만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정 중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계 1:8) 말씀처럼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그 때에도 함께 하시지만 ‘이제도’ 우리와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제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우리와 24시간 365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디엘 무디가 모세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다음 40년 동안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통해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2023년 동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능하나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자를 찾아 유능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명한 자를 찾아 전능하신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매일 매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어서 무명한 우리에게 주의 능력과 은혜와 복이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위원 최지영 집사〉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올해 첫 번째 드림축제



2023년 새 해 첫날인 주일에 드림축제 예배가 은혜로운 가운데 이근도 목사님의 인도로 성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예배 후 건축헌금으로 작성한 금액을 온가족이 함께 드림으로 더욱 의미 있는 새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전 11시에 디노체 컨벤션홀에서 업드림, 세움연합찬양대와 GBC 오케스트라, 하우워십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첫 예배의 문을 열었고 이어 14시에는 업드림, 하우워십 찬양대가 두 번째 예배의 문을 열었습니다. 왕십리 성전 이전 이후 처음으로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찬양은 더욱 풍성해져서 더 큰 은혜가 되었고 감격스러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주님께〉, 〈예수 나의 산 소망〉, 〈나의 주 크고 놀라운〉 등의 찬양 곡들로 성전을 가득 채운 이날의 찬양은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성전 건축 후에 규모가 세배나 더 커진다고 하니 더 크고 성대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찬양하는 모습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건축헌금과 관련하여 이순일 집사님, 박소담

성도님, 이어서 송창하 성도님의 믿음의 간증이 있었는데 이 세분들의 믿음의 간증은 성도들의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어 전진옥 장로님의 대표기도 후 합동 헌아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헌아식에는 총 10가정의 아이들이 참여하였고 최병락 목사님은 올해에 특별히 나무판에 부모의 기도가 새겨진 헌아증서를 각 가정에 수여하였고, 수고한 엄마들에게 일일이 화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이어 모든 성도들은 〈너는 시냇가에〉 축복송을 불러주며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병락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보여준 마태복음 14장13절~21절이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를 생각하며 오병이어의 기적에 앞서 마태복음 14장:1~12절에서 언급된 화려하고 온갖 진귀한 음식이 넘쳐나는 헤롯 궁전의 생일파티에서 일어난 요한의 살인을 언급

하셨습니다. 빈들에서의 예수님과의 삶과 대비된 요한의 삶을 비교하시며 시편 84절에서 고라자손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 보다 나은 것이라고 하였는데 기적이란 가진 것으로 역사하지 않고 드린 것으로 역사하며 예수님이 축사하셔야 기적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최병락 목사님의 설교를 마치고 각 가정 또는 개인이 작성한 건축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인별로 또는 가족이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가깝게 비치된 헌금함으로 향했습니다. 기도제목이 적힌 헌금 봉투를 들고 줄지어 차례로 헌금함으로 향하는 아름다운 걸음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최병락 목사님은 어두운 세상 비추는 열방의 빛이 될 새 성전을 위해 참여하는 가정마다 영혼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새 성전 건축의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일 때마다 성도들의 간증이 넘쳐 나고 교회와 각 가정에 새로운 역사가 세워질 기도합니다.

〈출판위원 김윤재 집사〉



2023 The First Blessing

신년축복성회



2023 The First Blessing 신년축복성회 1일차 김병삼 목사님



2023년 1월 1일, 새해의 첫 시작을 알리며 신년축복성회(The First Blessing)가 열렸습니다. 세움중창단의 "Joy To The World"라는 찬양의 고백으로 예배가 시작되었고, 이어 김성민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찬양팀과 함께 귀한 한 해의 시작을 온전히 뜨겁게, 마음을 다해 찬양했습니다.

헌금 특송으로는 <팬텀싱어 2>에 참여해 좋은 성적을 냈던 최진호 성도님과 송근혁 성도님께서 "아버지여"라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의 모든 것 되소서. 어둡고 험한 세상 담대하게 나아가리라"라는 결단의 가사들이 수놓아진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어 최병락 담임목사님께서 헌금 기도와 간단한 광고를 진행하신 후에 세움연합찬양대의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찬양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최병락 담임목사님께서 오늘 설교해주실 '김병삼 목사님'을 소개하고 '사무엘상 15장 22절' 본문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김병삼 목사님은 만나교회 담임목사이시며 (사)월드휴먼브리지의 대표, 하늘다리호스피스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김병삼 목사님은 새해 첫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해주셨습니다.

김병삼 목사님께서서는 본격적인 설교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이 은혜일까? vs 나를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은혜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보통 "오늘 말씀 완전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은혜 받았어!"라며 전자의 경우를 더 많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서는 결국 진정한 은혜란, 비록 당시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만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진정한 은혜의 말씀이라고 정정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서 인상 깊게 읽은 홍기영 목사의 <더, 더, 가까이>라는 책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못하고 양털 시험을 하는 예화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결국 믿음이란, 내가 믿는 것까지가 믿음이며 '유사 믿음'과 '진짜 믿음'은 꼭 구별해야하며 그것을 잘 구별해내는 것이 신년의 큰 축복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축복과 기복의 차이도 잘 구분해야한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기복은 무조건 하나님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라고 복을 비는 것이 기복 신앙이고,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만한 사람인지, 복을 받을만한 존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도 공감되었던 크리스천들은 내가 순종하기 싫을 때 항상 "기도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셨을 땐,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이에 대한 관련 일화로 목사님께서 39살에 '만나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르심 받았던 일화, 30살 유학생 때 시카고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초빙되었으나 여러 오해와 핍박으로 자리를 내려놓아야했던 경험담들을 진솔하게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시며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병삼 목사님께서서는 2023년,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순종되는 삶이 실천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즉, 믿음의 패턴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도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면 말씀을 끝맺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많이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하게 했던 "보소서 주님"이라는 찬양의 가사의 고백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2023년 첫 시작의 말씀으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인지 점검해보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신년축복성회 첫 예배였습니다.

(편집위원 이종미 집사)



2023 The First Blessing **신년축복성회**

2023 The First Blessing 신년축복성회 2일차 김종원 목사님



1월 2일 신년 축복성회 두번째 날에는 경산중앙교회 김종원 목사님께서 오전과 저녁 두 번에 걸쳐 집회를 인도해주셨습니다.

아침 10시 집회에서는 말씀에 앞서 강청워십, 피아워십, GBC콰이어의 뜨거운 찬양과 김은영집사님의 헌금특송 <시편 23편>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김종원 목사님께서 시편 147편 1절~12절을 본문으로 “비 준비하시나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성경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것이 찬양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왜 찬양해야 하는지, 그 마땅히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세가지로 제시하셨습니다.

첫번째, ‘치유하심에 감사하라’ 나라가 망해 포로로 잡혀간 흠어진 백성의 깊은 상처까지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총체적인 치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합니다. 두번째,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름을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특별한 공로를 세우지 않아도 인자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천지만물과 더불어 감사하라’ 주변의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작품세계, 하나님의 갤러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머물렀던 3년, 더 이상 온라인에 머무르지 말고 어깨를 펴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며 찬양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렇게 마땅히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그 분만을 높이며, 새해 더욱 감사하고 찬양하면 삶에 생기가 솟아날 줄 믿습니다.

저녁 8시부터 진행된 저녁 집회는 이음워십, 피아워십, GBC콰이어의 찬양과 업드림 중창단의 특송 <Total Praise>, 세움연합찬양대의 <불같은성령> 찬송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원 목사님은 출애굽기 3장 1절~10절로 <이제 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며 성도들과 함께 “줄~습니다”를 외치며 힘차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셨듯 우리에게도 “2022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로운 2023년을 살아내라”고 명령하신다고 하시며, ‘이전방식이 아닌 새해답게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플루스울트라’, 즉 보다 더 멀리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 두가지로 전해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한다.’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신 하나님께서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데도 백성을 더욱 번성케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내려고 하는 교회는 우뚝우뚝 세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한번도 가 본 적 없는 2023년을 그냥 등 떠밀고 가라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며 모든 출애굽의 마스터플랜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 가시며 우리에게도 “이제 가라”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먼저 일하심을 믿고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보고계시는 하나님,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한 바가지 마중물이 되어 상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축복이 샘솟게 되는 줄 믿는다고 축복하시며 뜨거운 기도로 둘째날 집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편집위원 조유희 집사>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회개와 순종으로 거듭나는 삶”

신년축복성회 3일 차,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깊은 소망은 마지막 날임에도 더욱 뜨거워진 열기를 느끼게 했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성도들은 한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고백하고, 어떤 고난에도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설교를 해주신 장경동 목사님은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을 통해 ‘성경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적은 책임’임을 짚고, 강중침 모든 성도가 새해를 맞아 ‘성경 일독’을 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깨달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회개하고 바른길을 찾아가갈 때, 바위틈에서 어렵게 자란 나무가 아름다운 분재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것임을 확신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과 16장 속 나타난 부자의 모습에서 ‘열심히 일하며 잘못된 일이 없는’ 부자가 왜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천국에 가기 어려운지’를 살펴본 말씀은 모인 성도들 각자가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끌어주었습니다. 앞서 나온 부자들과 달리 ‘유일하게 천국에 들어갈’ 누가복음 19장 부자 사개오를 통해 ‘어떻게 해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 내용은 말씀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잘못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잘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부자는 ‘부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 하늘에 쌓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임을 알게 되었고, 그 안에 보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의미가 있음 역시 깊이 느껴졌습니다. 사도행전 속 바울이 순교에 이르기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온 모습과 하나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진 예수님의 삶은 생생한 모범으로 증거되어 각자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디노체로 장소를 옮긴 저녁, 장경동 목사님은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염소의 상태를 벗어나 양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을 이어 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양’의 상태가 되기 위해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양이 된 자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음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회개가 없으며 보은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들 이삭까지 바칠 줄 알았던 ‘양’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은혜에

2023 The First Blessing 신년축복성회 3일차 장경동 목사님



감사를 모른 ‘염소’ 룯이 멸망할 소돔 땅을 택해 모든 것을 잃게 된 사례는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목사님은 체험하신 경험을 통해 우리가 성령을 만날 때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와 같은 황홀함이 만나게 됨을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하는 것 역시 알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목사님은 오늘 집회를 통해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양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가는 긴 시간이었지만 말씀 위에 굳게 선 풍성하고 깊은 말씀으로 모인 성도 모두는 큰 은혜와 축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진정한 양이 되어 천국에 가는 소망이 성도들의 마음에 자라난 시간이었습니다. <편집위원 김문수 성도>

드림축제 간증

드림축제 간증 김소담 성도(강침)



안녕하세요! 저는 강침 양육 2부 소속 김소담 청년입니다.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미르테 바이 혜정이라는 피부관리샵에서 일하게 되었고, 미르테 대표이신 박혜정 집사님을 만나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강침 SMT 타오스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강중침은 제게 구원의 통로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지난 여름 양수리수양관에서 열린 여름산상성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집회부터 참석하게 된 저는 저녁 집회 강사로 말씀 전해주셨던 주성민 목사님의 건축 간증 중 세계로 금란교회 청년들의 건축헌금을 대한 믿음과 마음을 보고 “과연 나도 저런 믿음을 행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도전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저의 사업장 원장님이자 신앙의 멘토이신 박혜정 집사님과 예배 후 뜨겁게 눈물로 기도를 마친 후에 박혜정 집사님과 장은진 집사님과 함께 숙소에서 은혜를 나누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식사를 하고 어제 밤 함께 은혜 나누었던 집사님들과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건축헌금을 드리고 싶는데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기도 하던 중 제 마음에 문득 “너, 집 있었잖아.” 라는 마음이 들었고 순간 “어? 이건 아닌데?” 라는 마음에 기도가 막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졌습니다. 분명 드리고 싶다고 갈망하다가 현실 앞에 주저하는 제 모습에 실망도 컸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제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집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집을 빼서 드린다면 저는 지낼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드림축제의 셋째 날 예배 시작 전 박혜정 집사님께 기도 때 받은 마음을 나눴고, 집사님께서선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한 번 더 예배 때 기도하며 확실한 응답을 받으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해주시는 집사님이시고, 또한 박혜정 집

사님께서도 이전에 하나님께 전 재산을 드려 잔고를 0으로 만들 어뵈던 경험이 있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간증을 들려주셨던 분이시기에 집사님께도 기도를 요청하고 저도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더욱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최병락 담임목사님께서 시편 133편 1~3절을 본문으로 “전 세대에 부어지는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배 도중 기름이라는 단어에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주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그 향유 옥합은 마리아의 결혼 자금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자신의 결혼자금을 깨어버린 마리아의 믿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 또한 집의 보증금을 곧 저의 전 재산이자 결혼자금입니다. 하지만 비웠을 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싶었으며 저의 믿음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전 건축에 동참하여 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 헛된 것에 투자하고 나의 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집에 돌아 온 뒤 헌금을 하고 온 것은 아니었지만 무척이나 부듯하고 은혜로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생각 저 생각이 들면서 심란해졌습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일까요? 그러나 확실한 응답을 받았기에 살고 있는 집이 제 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집 침대에 그냥 누워만 있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강중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시는 최병락 담임목사님, 그리고 저를 신앙으로 이끌어주시는 신앙의 멘토들을 만나 신앙이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강중침에서 하나님께서는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2022년 두 번째 타오스 선교를 준비할 때 짬 목장 모임 안에서 송창하 형제를 만났고, 새벽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서로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전건축 헌금으로 제 모든 것을 드리자는 응답에 기뻐할 때에 교제 중이던 송창하 형제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드려도 되지만 교제를 시작하지 얼마 안 된 송창하 형제에게 제 선택이 혹여나 우리의 만남의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닐까 우려가 되었습니다. 바로 연락을 해서 만나서 제가 기도 중 받은 마음과 제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짧게 “드리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집도 없다.”라는 말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말을 가만히 다 듣고 난 후 송창하 형제는 “하나님께서 드리라면 드려야지!” 라며 명쾌하게 대답하였고 그 짧은 말이 제겐 너무나 따뜻하였고 목직한 감동이 되었습니다. “정말 믿는 자는 다르구나! 이

사람이구나”라는 마음에 결혼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축헌금에 대한 작정으로 결혼에 대한 확신을 주셨기에 저희는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결혼이야기가 시작될 때 제 마음에 또 하나의 걱정이 생겼습니다. “예비 시어머님께서 혼수도 못해가는 나를 좋아하실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마저도 모두 예비해 주시고 더욱더 큰 확신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저의 예비 시어머님께서 송창하 형제 통해서 보내온 메시지를 읽어드립니다. “어젯밤에 너랑 소담이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것을 나도 같이 기도하면서 묵상해 볼수록 기특하고 기쁘다. 그대로 하나님 은혜로 진행된다면 소담이가 하나님께 드리고 오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혼수를 해오는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카톡을 보고 제 마음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고 오히려 든든하고 힘이 되었습니다.

당장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뺄 수 없었지만, 결심하고 확신이 섰을 때 헌금하고 싶어하는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비 시어머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보증금 금액을 먼저 빌려주셔서 하나님께 헌금 할 수 있도록 상황을 인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2022년 10월2일 주일 담임목사님을 찾아가 저희의 짧은 간증을 나누고, 건축헌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담임목사님의 축복 기도 후 2023년 2월 11일로 계획된 결혼식 주례를 담임목사님께 부탁드리며, 은혜가운데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했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순적하게 이끌어 주셨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신혼생활이 되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면 어떠한 일이라도 막힘없이 다 해결되고 순적하게 이루어진다는 확신가지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확신이 저희 가정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또한 건축헌금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가정에 시집가게 된다는 기쁨과 감격에 저의 결혼 준비는 오늘도 너무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중침 믿음의 선배들에게 한 가지 기도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열심히 기도 중이고 언젠가는 하나님 때에 믿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간증과 기도 그리고 저의 간증으로 세워질 새성전에서 저희 가족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드린 것보다 더 큰 사랑과 감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드림축재 간증 이순일 집사(7교구)



1996년 2월 3일 저희 부부는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인 저희 집안과 가족 수대로 불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김 정도로 불심이 깊었던 처가와의 만남은 그야말로 물과 기름처럼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충돌은 엄청났습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부친의 사업은 부도가 나고 이 영향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저희 부부에게까지 이르렀고, 빛으로 얼룩진 나날은 하루하루가 고통과 절망의 나날이었습니다. 결국 방 2칸에 햇볕이 겨우 드는 반지하로 주거를 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내는 날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결혼생활의 고통을 호소하였고, 잠을 청할 때면 꿈에서 귀신이 나와서 괴롭히는 통에 6개월여를 불면증으로 시달렸습니다. 그토록 바랬던 결혼이었는데, 기도로 이루어진 출발이었는데 왜 이렇게도 막히고 풀리지 않을까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불을 정리하다가 배게 속에 숨겨둔 부적을 발견하였습니다. 장모님이 저희 모르게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그것을 들고나가 불태워 버렸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약 3백만 원이나 주셔서 만든 부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적 때문이었을까? 혹시 이 부적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을까? 정말 가지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결혼은 잘못된 것인지? 다시 헤어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맞는 것이 없고 힘들기만 하였던 신혼 생활에 희망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신앙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저의 완고함으로 인해 아내는 예배에 계속해서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내는 신앙 공동체인 목장의 도움으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일처럼 여기지 않고

진정으로 함께 기도해주신 권사님들의 눈물어린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진리의 삶에 눈을 뜬 아내는 세상의 가치보다 믿음의 생활을 더 중시 여겼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간의 쌓인 영혼의 상처도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한 저희 부부의 삶은 제자반과 전도폭발 및 새신자 양육반 그리고 찬양대 등 모든 섬김의 생활을 실천하였습니다. 제일 은혜로웠던 것은 재정부 봉사였습니다. 성도들의 귀히 귀한 감사의 헌물을 보면서 교회를 옮기기까지 약 8년여를 섬기는 동안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교회는 양적으로 영적으로 부흥을 이뤄나갔고 결국 담임목사님께서 60년 만에 성전 건축을 선포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지어진 부친의 채무도 많았고 집도 없이 방 2칸의 반지하 전세를 살고 있었지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건축헌금을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목돈은 아니었지만 틈틈이 생기는 대로 다 작정을 하였습니다. 청약저축으로 모아놓은 금액도 하나님께 드리지는 와이프의 파격적 제안에 인간적으로 아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통장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거 하나 보고 살았는데 하는 마음.. 그러나 와이프는 완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인데 이제 믿은 와이프의 믿음만도 못하니 하는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그 외 자녀들 및 아내의 패물도 모두 모아 드렸고 돌아가시기 3개월 전 하나님을 영접하신 장인어른의 장례비 남은 것 등을 모아서 드렸습니다. 이젠 남은 게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주거를 위해 남겨놓은 물질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 당첨되면 로또라 불리는 판교신도시를 세운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비록 물질은 없었지만 그곳은 너무나 가서 살고 싶은 꿈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래도 모델하우스나 가보자 하면서 이곳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꿈같은 일이었구나 하고 아쉬워하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물질도 그렇고 자격요건으로도 갈 수 없었던 저희는 특별공급 조건 중 맨 아래에 노부모 부양이라는 조건이 저희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몸이 불편

하시고 연로하신 장인 장모님을 모시기 위해 동거인으로 올려놓았던 것이 청약 자격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당첨이 되었고 시세를 따져보니 하나님의 집을 위해 드린 헌금액의 정확히 100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은 저희의 헌신을 잊지 않고 돌려주셨습니다.

그 기쁨과 감동은 너무나 커서 저희 부부는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던 아름다운 신앙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과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면서 기도로 준비해왔던 저희에게 하나님은 강중침을 만나게 하시어 이곳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강중침의 성전 건축! 교회가 건축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등록하게 되었지만 건축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셨구나, 건축을 통해 건축을 참여하게 함으로 또 다시 큰 복을 주시려나구나 하며 기쁘게 건축에 동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미 성전건축에 참여하여 100배로 돌려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셨기 때문에 주시려 하는데 거절한다면 자녀의 도리가 아니라 생각하며 기쁨으로 건축헌금을 작정하였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일이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전건축에 참여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성전건축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복 주시고자 마련해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이미 앞선 교회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확신으로 성전건축에 힘을 다해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남은 평생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여도 부족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저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에 귀한 서리집사 임직까지 허락하시고 침례까지 새로이 받게 되니 저희는 참 복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은 안내로 1부 예배를 섬기고 있지만 더 섬기겠습니다. 더 많이 봉사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는 안될지라도 아론과 훌의 역할을 감당하지는 못할지라도 묵묵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용히 최병력 담임목사님 옆을 지키며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을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간증의 완성을 통해서 또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드림축재 간증 송창하 성도(강침)



안녕하세요, 강침 소속 송창하 청년입니다.

소담 자매가 전세보증금 전액을 헌금으로 드린다고 했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자매가 그런 결단을 내렸다는 것에 그리고 그 자매가 내 여자친구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보다 먼저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드린 분들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때 소담 자매에게 향한 저의 대답은 “다시 생각해보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드리신 분들의 간증과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분들을 통한 하나님을 분명히 느꼈고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배울 수 있었기에 그리고 또 그 순간 이미 김소담 자매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느껴졌기에 “아, 내가 방해꾼이 됐다가는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또 그 순간 ‘순종’과 ‘동참’ 이 두 단어만이 떠올랐기에 함께 드리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2022년 초에 어머니께서 저를 집에 불러 앉히시더니 “너도 새성전 건축 헌금을 드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드릴 생각이 전혀 없었고 “왜 이 나이에 헌금 부분까지 간섭해야 하나?”라는 비뚤어진 마음으로 아무 대답 없이 그 자리를 바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그동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 축복이었지 손해 본 것 하나도 없었기에 갈등이 심해졌고 그것이 하나님의

두드림이라 느끼면서도 그 당시 제 마음이 너무 강박했기에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3월에 이 자리에서는 나누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제 방탕한 삶 가운데에 주신 큰 경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워서 새벽기도회에 나가 뼈를 깎아내듯 회개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문제도 정말 선하신 방법으로 해결해주셨습니다. 그 계기로 인해서 앞으로 평생 새벽기도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새벽기도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영적으로 많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출근하는 날에는 매일 새벽기도회에 나가며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고 “나도 하나님께 건축 헌금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시작한 서울사에서 두 배로 지원해주는 적금 통장이 떠올랐습니다. 경쟁률이 엄청 높았기에 당시 제가 선정되었을 때 너무 기뻐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임금이 높지 못해서 전부터 결혼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주거, 교육, 창업, 결혼자금 4가지 지원 내용에 결혼자금으로 선택하였고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날 생각에 그리고 만기가 될 때에는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고 있을까 하는 큰 기대하는 마음으로 3년 동안 시작했던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통장이 2022년 10월에 만기가 되면 새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허락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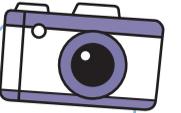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보니 분명했던 것은 2019년 첫 달 적금 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앞서 행하셨기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통장 중에 가장 제가 소중히 여기던 그리고 아끼던 통장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제 삶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것을 기억하고 겨우 작은 부분하나 드린 것뿐인데 이렇게 큰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중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시기에 강박했던 제 마음조차 무

너트려 고쳐주시고 이곳에 동참하게 하신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적금 통장은 제가 예금한 금액과 서울사에서 지원하는 서울시 지원금 반이 합쳐진 헌금입니다. 저도 헌금했지만, 서울시가 강중침의 건축을 위해 헌금할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에 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하여 세우실 새성전의 교회를 먼저 사랑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회개하고 결단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김소담 자매를 저의 배우자로 허락하신 것 같고 시기적으로도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함께 건축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꼭 간증하고 싶은 것은 저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물론 아직 부족하고 더 살아나야 하지만 그래도 죄와 멀어지기 위해서 발버둥 쳤고 밤마다 자기 전에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달라고 신음하였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였더니 2022년 한 해 동안 저를 살리셨습니다. 강중침에서 좋은 목사님과 목원들과의 만남을 허락 해주셨고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함께 새벽에 기도하게 하였고 캄보디아 SMT에서는 청년들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강중침을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아니면 영상으로 듣고 계신 청년분들 중에 세상 것들 다 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더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기만 해도 저처럼 꼭 살려주시길 믿습니다. 교회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하는 청년들이 회복되고 부흥되어서 우리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함으로 섬김으로 사랑함으로 좋은 교회 같이 세워 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성 프로젝트 1월 베스트 스토리상 권미지 집사(4교구)

목원들과 두 번째 참여한 세겔음 기도회

남편의 서울 발령으로 인해서 갑자기 울산에서 이사를 온 뒤 코로나와 둘째 출산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울산에서는 청년부 시절부터 남편과 만난 교회에서 잘 정착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저희 가족에게 낯선 서울 생활에서의 교회 정하기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권유로 최병락 담임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고,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한 사랑이 있는 목사님이라면 이 교회에 출석해도 좋겠다는 심정으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마침 집에서도 가까웠던 구 성전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교회에 방문해 처음으로 들었던 설교가 세움시리즈 설교였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방문했음에도 자모실도 없었지만 새가족실에서 아이들과 영상으로 세움 설교를 들으며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건축하는 교회로 부르셨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강중침은 저에게 서울에서 처음으로 정착한 교회가 되었고, 목사님께서 먹여주시는 말씀을 통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매주 은혜의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매주 줌으로 목사님 가정과 만나며 주일에 들었던 말씀도 나누고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원들과 이렇게 세겔음 기도회도 참여할 수 있게 되서 감사했습니다. 3살 5살 아이들을 데리고 세겔음 기도회를 참석하며 이 아이들이 이 성전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말씀으로 커나갈 것을 소망했습니다.

저희 가족을 평안하던 울산이라는 땅에서 조금은 척박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광야라는 땅에서 강중침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물질과 기도로 심어져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목장을 통해 기도했던 모든 기도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 저희 가정도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최병락 목사님과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늘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주셨던 강운호 목사님과 엄용석 목사님, 성수희 목사님, 목원님들 감사합니다.



1월 베스트 포토 최준호 집사(5교구)



5103 목장 최준호 목자입니다. 목장 세겔음 기도를 11월 16일에 했음에도 이제셔야 올립니다. 상반기 세겔음기도 후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바로 글을 올렸는데, 하반기에 그 마음이 식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번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새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품고 기도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 목장은 최준호, 송민정 목자와 8살 초등처 최동윤, 그리고 정해진 집사님 이렇게 4명이 세겔음 기도회에 참여하였습니다. 함께 새성전 건축 기도제목들을 들으며 강남성전 터를 돌면서 다시금 시공사가 선정되고 공사가 시작되어 정해진 기한에 완공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으며 기도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세겔음 기도는 이어질 텐데, 올해에도 목장 식구 모두 참여하는 기도 전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함성"



함성프로젝트 1월 집계(바퀴수)

• 세겔음기도(장년): 1,716 바퀴 • 시금석기도(시니어): 25,104 바퀴

1월 집계 26,820 바퀴

누적 합계 223,577 바퀴

<1월 세겔음 기도 이벤트>

최다 참여상(김미라 집사), 베스트 포토상(최준호 집사), 베스트 스토리상(권미지 집사)
※ 겨울철 안전한 세겔음기도를 위해 내리막길 낙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안내>

1. 뭉쳐서 움직이시면 안됩니다. (인도가 좁습니다.)
2. 소리내어 기도하면 안됩니다. (주변에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3. 눈을 뜨시고 주변 안전을 살피가며 기도합니다. (차량의 이동이 많습니다.)
4. 눈길에 미끄러우면 성전과 교육관 사잇길을 왕복하며 기도합니다.
※ 세겔음 기도 참여자는 지정된 장소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기록을 남겨주세요.

우리 목장을 소개합니다!

2120목장 한혜경 목자



2021년 10월 1일 분가예배 후 강남성전 뜰 앞에서 최병락 담임목사님, 이수복 담임사모님과 함께

따뜻한 목장 찾으시나요? 여기 짙짙 끓는 목장 있습니다! 2교구 2120목장 분가생존기



2021년 10월 1일 홍지승 목사님 인도로 분가예배 드리고 2120목장 탄생하다.



2022년 12월 20일, 김기영 권사님 목자훈련 마치고 기념 축하 모임



저는 다섯 가정으로 구성된 2120목장의 3년차 목자입니다. 저희 목장의 모태는 2106목장 이고, 저를 목자로 이끄신 분은 김이할 목자님입니다.

분가 준비: 목장의 꽃은 분가!

강중침에서 목장이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0년 6월, 김이할 목자님이 목원인 저에게 “목자 훈련 받으시겠어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엉겁결에 “예”라고 답했는데, 김이할 목자님은 이날의 대화를 빛나는 아름다운 순종의 순간으로 기억하셨습니다.

이때부터 김이할 목자님은 “목장의 꽃은 분가”라고 목원들에게 강조하며 2021년에는 새로운 목장을 개척하겠다고 선포하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목원들을 무장시키는 목자 훈련과정과 도고기도로 분가가 준비되었습니다. 격려 속에 저는 무사히 2기 목자훈련을 마쳤고 예비목자가 되었습니다. 눈이 트이니 목원들을 돌보는 목자님들이 더욱 존경스러웠습니다.

분가 감사예배: 목장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

드디어 2021년 10월 1일, 2교구 홍지승 목사님과 양민 목양장로님, 안성만 목양장로님의 축복 속에 2120목장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홍지승 목사님은 “분가는 건강한 목장의 열매이고 교회에 힘을 더해주는 일입니다. 목자는 기도와 함께 목장 분가를 사명으로 삼고 충성할 것이며 배가의 기쁨에 소망을 두십시오”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날 저는, 살아 있는 목장의 사명은 곧 분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장의 든든한 기둥인 김기영 권사님은 “기도제목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이 목장입니다. 목장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이라 생각하고, 우리 목장이 하나님께 더욱 쓰임 받도록 돕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분가 소감을 밝히셨습니다. 감동적인 분가 감사예배를 기획하고 소나기처럼 축복을 부어주신 김이할 목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분가 그 후: 줄줄이 예비목자가 탄생하다

저는 목자가 되고 나서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본 대로 한다. 들은 대로 한다. 배운 대로 한다. 매뉴얼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도록 <목자를 위한 15가지 원칙>을 벽에 붙여놓고 자주 쳐다봅니다.

2021년 10월 6일, 분가한 목장 단독으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이할 목자님과 연합하여 도고기도로 목자훈련을 독려하는 가운데 2021년 12월, 김영인 집사님이 3기 목자훈련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또 한 분의 예비목자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4기 목자훈련에서는 김기영 권사님이 예비목자가 되셨습니다. 목장은 '엘리트 목자 양성소'라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와우, 2120목장의 모든 목원들이 모두 목자가 되는 그날까지 달려가 보는 거야!

지금, 여기: 아름다운 공동체, 제2의 분가를 준비하며

강중침 교인이 된 지 40여 년째로 세 분의 담임목사님을 섬겨 왔고 목장에서 찬양팀장을 맡고 있는 조현정 집사님은, “깊이 있고 꾸준한 예배를 통해 도고기도함으로써 응답과 힘을 얻습니다. 무심코 예배만 드리고 예배당을 나왔는데 목장에 예배 덕분에 주중에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라고 목장의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2022년까지 여전도회 임원을 맡았고 목장에서 기도팀장으로 섬기는 권혁선 집사님은, “목장예배는 연약함을 나눌 수 있고 영육을 채우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담임목사님의 설교말씀을 나누고 나의 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어서 귀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목원들의 간증에 더하여 목장예배를 통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바로 목자인 저입니다. 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목장은 2021년 분가 후 현재 두 명의 예비목자가 탄생했고 다시 목장 분가를 준비 중입니다. 목장의 꽃은 분가이고 목장의 사명은 목자 배출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제자 되는 교회”에 발맞추어 “모든 목원 제자 되는 목장”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예비목자 김영인 집사님 간증입니다.

최병락 담임목사님 설교는 정성 가득 영양 최고의 집밥입니다. 목장예배를 통해 곱씹고 있으면 세로 하나하나에 영양분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둘러앉아 웃고 울고 감격하는 귀한 시간을 점점 더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 사랑 안에 목자님과 목원들과 영적인 가족이 되어 삶의 평안과 큰 힘을 얻습니다. 특히 도고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니다! 목장에서 나는 기도제목은 반드시 주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하심을 경험하며, 이제는 기도하면 기대가 됩니다. 특히 우리 목장은 사랑이 많은 한혜경 목자님과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김기영 권사님, 솔직하고 귀여운 조현정 집사님, 더 솔직함으로 감동까지 주시는 권혁선 집사님까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입니다.

2교구 담당 홍지승 목사님과 양민, 안성만 장로님, 이전 목자이신 김이할 권사님의 사랑과 섬김이 본보기가 되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2120목장 소속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성도의 기도 이상도 장로(4교구)

* "성도의 기도"에서는 우리교회 성도들이 공예배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나눕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마지막 주일 이른 아침, 특별히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며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는 이 옷마다 복음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 가정마다 따뜻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그동안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언제가 될 지 모르는 인생의 마지막 날을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죄 가운데 살았던 모든 것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송구영신 예배, 드림축제와 신년부흥성회에 마음을 다해 예배함으로, 올해 마지막과 내년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2023년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 위에 더욱 채워 지게 하옵소서.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이 한반도에도 하나님의 평안과 돌보심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도 회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하는 사명도 더욱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새성전 건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사역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능력보다 순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 동안 성전보다 더 큰 믿음이 세워지고 삶을 통한 은혜의 간증이 풍성히 쌓여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새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담임목사님, 매일매일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늘 샘솟게 하셔서 지치지 않고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더욱 뜨거워져 떨림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우리에게 울림으로 다가오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 안에 묶여 있는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육신의 고통이 치료되며 깨어진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한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세움 중창의 찬양을 흠뻑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12월 25일 주일 1부 예배 대표 기도문-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며 합동 헌아식

지난 1월 1일 2023년 첫 번째 헌아식이 드림축제 중에 진행되었습니다. 헌아식(Baby dedication)은 부모가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여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때까지 키우겠다는 헌신을 고백하는 아이와 부모,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번 헌아식은 24개월 미만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모집 후 10가정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헌아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소중한 간증들을 소개합니다.

홍성철·최재연 집사(자녀 홍민기)



이 들었습니다. 큰 박수와 축복 속에서 헌아식 행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민기를 출산하고 길러내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다 같이 예배드리리는 신년축복성회에서 진행된 헌아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맺어주신 저희 가정에 소중한 민기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고백하는 시간이었기에 헌아식은 저희 부부에게 더욱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헌아식을 준비하고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이 아이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려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소소한 기도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뜻 가운데 이 자녀를 새 생명의 선물로 허락해주셨음에 감사와 기쁜 마음

결혼 후 간절하게 자녀를 기다려온 저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셨고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매주 교회에서 예배와 찬양으로 저희를 품어주셨고 매일 매일을 기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게 따뜻한 목장을 만나게 해주셔서 어린 양처럼 돌봐주셨습니다. 외로울 수 있는 이 기다림에 함께 기도해주고 응원해준 목장 식구들이 있어서 걱정과 염려로 가득했던 저희 부부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시간 온라인 예배와 비대면 목장모임이 저희에게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처음 임신 소식과 출산 소식을 전하면서 누구보다도 기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목장 식구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저희 목자 부부께서는 출산 직전에도 전화로 기도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민기 마음속에 심긴 신앙의 씨앗이 이 아이가 걸어갈 삶의 여정에 큰 힘이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기가 주님께 받은 총명한 사랑을 이웃과 나눌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이 민기를 통해 이웃들에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민기가 사람들,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나 세상 한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소망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태업·조희선 집사(자녀 안예린)



데, 행여 많은 성도님들 앞에 섰을 때 예린이가 혹시 울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것도 잠시, 예린이는 씩씩하게 담임목사님과 전 성도님들의 축복을 받았고 기쁨과 감사로 헌아식을 마칠 수 있었

2023년이 시작되는 새해 첫날에 왕십리 비전 센터에서의 헌아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헌아식을 통해 예린이가 저희 가정의 소중한 자녀일 뿐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통해 부모도 성장한다는 애기가 있듯이 저희 부부 또한 예린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아 예식을 가진 만큼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부모로서 본을 보이며 살아가겠노라 다짐 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헌아식을 앞두고 저희 부부는 조금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코로나라는 환경 속에서 온라인으로만 예배 참석을 했었는

습니다. 헌아식을 준비하며 사전에 저희 부부가 예린이를 생각하며 작성했던 '헌아기도문' 또한 추후 아이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 기대가 큼니다.

저희 아이는 '22년 1월 14일에 태어났습니다. 임신중이었던 아내가 전치태반 증상이 있어 생각지도 못하게 출산 전월인 12월부터 입원해 있었고, 아이는 최초 예정일보다 조금 빠른 37주에 세상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 아내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매일 기도를 하였고 수술 날, 출산 직전에는 저희 부부는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을 반복하여 부르며, 눈물로써 기도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내와 아이 모두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웃으며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당시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마음고생 했는지 모릅니다.

인생에 있어 출산이라는 큰 산을 한번 넘고나서 생각해보니 제일 감사했던 것은 매주 은혜를 이어가도록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병락 담임목사님과 이음교구 목장 모임 덕분에 염려와 걱정 앞에 엎드려 기도 할 수 있었고, 기도의 동역자인 목장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를 더하였기 때문에 많은 위로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 그리고 저희 부부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년 일독 공동체 성경읽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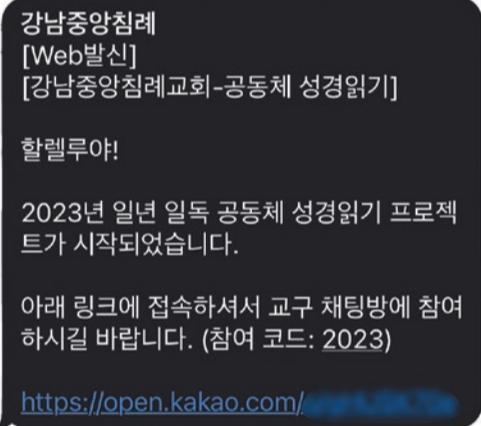
김준수 전도사(장년교육위원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모든 성도 제자되는 교회 - Discipling Church의 해를 맞이하여 장년교육국에서 일년 일독 공동체 성경읽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공동체 성경읽기 프로젝트는 서약서를 제출한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총 14개의 그룹이 이루어져 1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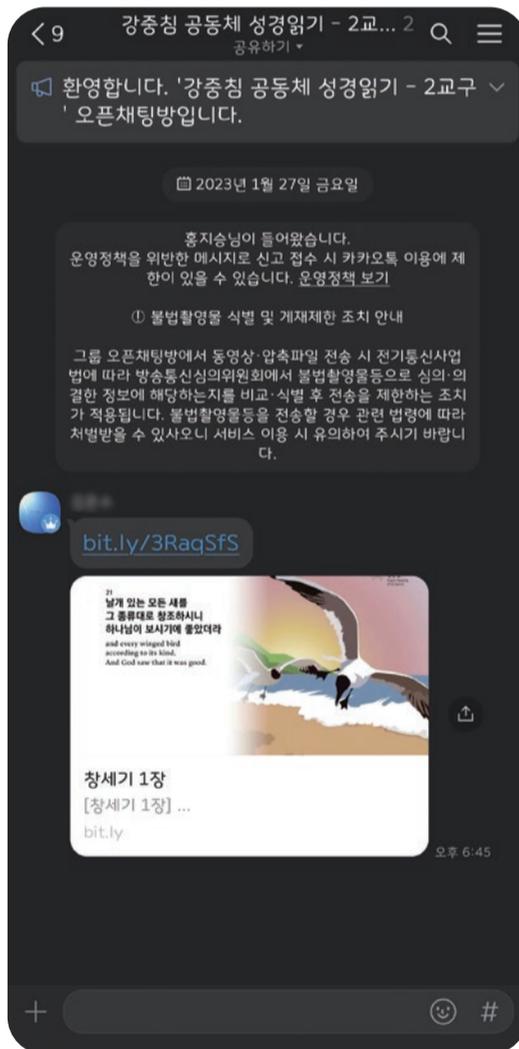
진행방법

- 1 서약서를 제출한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 2 문자 안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여 교구 채팅방에 참여합니다.
- 3 매일 아침 교구 채팅방에 공유되는 성경읽기 영상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 4 당일 본문 성경읽기를 마치면 성경읽기표에 체크합니다. (성경읽기표는 교회 로비에 있습니다.)

| 교구/이름: 1교구/강중침 | |
|---|---|
| 2월 강중침 공동체 성경읽기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30 창 1-4장, 시 1편 | <input type="checkbox"/> 14 출 3-6장, 시 14편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31 창 5-8장, 시 2편 | <input type="checkbox"/> 15 출 7-10장, 시 15편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창 9-12장, 시 3편 | <input type="checkbox"/> 16 출 11-14장, 시 16편 |
| <input type="checkbox"/> 2 창 13-16장, 시 4편 | <input type="checkbox"/> 17 출 15-18장, 시 17편 |
| <input type="checkbox"/> 3 창 17-20장, 시 5편 | <input type="checkbox"/> 18 출 19-22장, 시 18편 |
| <input type="checkbox"/> 4 창 21-24장, 시 6편 | <input checked="" type="checkbox"/> 19 주일 (몰아 읽기)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5 주일 (몰아 읽기) | <input type="checkbox"/> 20 출 23-26장, 시 19편 |
| <input type="checkbox"/> 6 창 25-28장, 시 7편 | <input type="checkbox"/> 21 출 27-30장, 시 20편 |
| <input type="checkbox"/> 7 창 29-32장, 시 8편 | <input type="checkbox"/> 22 출 31-34장, 시 21편 |
| <input type="checkbox"/> 8 창 33-36장, 시 9편 | <input type="checkbox"/> 23 출 35-38장, 시 22편 |
| <input type="checkbox"/> 9 창 37-40장, 시 10편 | <input type="checkbox"/> 24 출 39-40장, 레 1-2장, 시 23편 |
| <input type="checkbox"/> 10 창 41-44장, 시 11편 | <input type="checkbox"/> 25 레 3-6장, 시 24편 |
| <input type="checkbox"/> 11 창 45-48장, 시 12편 | <input type="checkbox"/> 26 주일 (몰아 읽기) |
| <input type="checkbox"/> 12 주일 (몰아 읽기) | <input type="checkbox"/> 27 레 7-10장, 시 25편 |
| <input type="checkbox"/> 13 창 49-50장, 출 1-2장, 시 13편 | <input type="checkbox"/> 28 레 11-14장, 시 26편 |



- 5 모두 체크한 성경읽기표를 두 달에 한 번씩 교회에 제출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처럼, 혼자하기 어려운 성경일독도 공동체와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 하루 20분 짧은 반복이지만, 꾸준히 함께 읽어 2023년 한 해 공동체 안에 부여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신청하셔서 함께 성경일독을 하시길 바랍니다.

1년1독 공동체 성경 읽기 프로젝트

-참여하면 좋은 사람들 편-

글·그림: 김정결 성도(강침)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빙'이 되었도다.(고전 5:17)

높은 산, 깊은 골, 고요한 양수리 수양관에 적막을 뚫고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젊은이들의 뜨거운 찬양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춤을 추고 있네요. 이 놀라운 광경의 주인공들은 바로 강남중앙침례교회 '청소년처' 학생들입니다.

지난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새빙'(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의 현대어)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청소년처 겨울캠프에 약 170명의 학생과 교육목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첫째 날 오전에 수양관에 도착한 청소년들은 개회예배부터 달귀지기 시작했습니다. 개회예배를 담당하신 이길호 전도사님(청소년처 담당)은 '새로운 피조물이란 신분의 변화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신분이 된다.'라며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됨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김지혜 사모님의 '반동성애' 강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며 '동성애'를 '죄'로 인식하지 않고 자유로 인정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반동성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첫 번째 저녁 집회에서는 김영광 목사님(차세대 교육국 총괄)을 통해 '십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사람을 통하여 일하심, 그리고 정확하심

이 얼마나 광대하신 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여야 한다.'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회개하며 기도한 후 이어진 찬양은, 죄로부터 자유 얻은 자의 기쁨을 온 몸으로 표현하게 했습니다.

둘째 날은 조별 레크리에이션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강창 구민성 형제의 진행으로 레크리에이션의 진수를 몸소 체험한 후, 오후에 탁지원 소장님(현대종교)의 이단강의를 들었습니다. 현 시대에 이단의 타겟이 된 청소년들을 지키기 위해 애절한 마음으로 펼친 강의는 청소년들의 마음 속에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가까이 이단이 있음을 느낀 청소년들의 상담으로 인해 탁소장님은 오래도록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후 공동체 게임으로 청소년들은 하나가 되었고, 그 안에서 즐거움과 함께함을 배웠습니다. 이어진 저녁시간, 교육목자님들이 직접 구운 바비큐를 맛있게 먹고 참여한 마지막 집회에서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살아남은 자가 강자이다. 끝까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자. 때로는 변화되는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버티는 신앙을 향한 외침을 함께 했습니다. 이 외침은 회개와 성령님 초청의 기도로 이어졌

고, 각기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순서가 끝난 뒤의 간증시간. 약 40여명의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마이크를 잡았고, 자신의 죄와 믿음을 고백했고, 연합함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 간증은 약 1시간 정도 진행되었고, 서로의 간증에 울고 웃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웠고, 깊었던 밤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캠프 마지막 막날 무사히 왕십리 성전에 도착하여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한 청소년들과 교육목자님들을 향한 주님의 은혜가 계속 되어 지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수능이 끝난 뒤에 캠프를 위해 매주 모여 기도하며 모든 순서를 준비한 고3 예비 청년들(이하 캠프준비팀)을 응원합니다. 캠프준비팀은 캠프준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캠프의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며, 후배들을 위해 모든 순서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때론 체력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이제 캠프를 마지막으로 청소년에서 청년이 되는 그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편집위원 최준호 집사>

겨울캠프 간증

최성주 학생(청소년처) 안녕하세요. 올해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최성주라고 합니다. 정든 초등학교를 떠나 낯선 청소년처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린 후, 분위기에 적응을 못한 채 캠프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캠프를 가게 되어 기대가 되고 긴장도 되었습니다. 캠프 첫째 날 저녁, 찬양할 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열정을 다해 찬양을 따라 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았던 말씀은 금요일 저녁 김영광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로마서 3장 23~24절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은혜 받았던 부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지옥을 갈 수 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뒤 기도 시간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청소년처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인지 온몸으로 느끼지 못했는데 캠프를 갔다 오고 나서는 이제 두 손 들고 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변화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캠프를 위해 수고해주신 청소년처 모든 선생님들과 전

도사님,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변화되게 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박지유 학생(청소년처)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박지유입니다. 저는 작년 여름캠프가 끝난 이후부터 이번 겨울캠프가 너무나도 기대되었고 캠프에 가는 것이 행복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캠프를 준비하였습니다. 캠프에 가서는 모르던 분들과 만나 얘기를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첫번째 강의에서 동성애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젠더라는 표현은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 집회 시간에는 다윗처럼 춤추며 찬양을 했고 김영광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째 날 강의 시간에는 제가 꼭 듣고 싶고 친구들, 언니 오빠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탁지원 소장님의 이단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우리 지역 이단 지도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앞으로 천천히 차근차근 이단 지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대망의 둘째 날 집회시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찬양하며 하나님께 저를 만나달라고, 저를 사용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며 다시 한 번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때의 감정은 저에게 감사와 행복으로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정을 절대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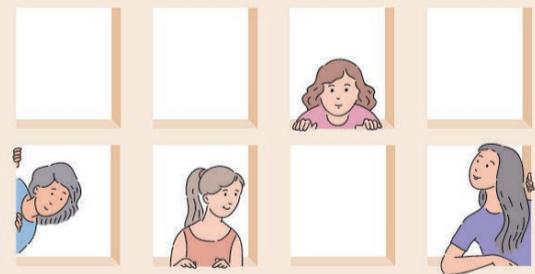
손민서 성도(강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수많은 캠프에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캠프를 준비하는 입장으로 참여한 만큼 마음가짐을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캠프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한 영혼만이라도 주님을 영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캠프를 준비하였습니다. 캠프준비팀으로 섬기며 총 6학년으로 캠프를 진행하는 것이 처음이기에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힘든 과정 속에서 캠프준비 20명의 인원이 힘을 모아 기도하며 캠프를 준비하였습니다. 캠프를 진행하며 청소년처 아이들이 우리가 준비한 레크리에이션, 공동체게임을 즐기는 모습은 좋았지만 '과연 주님을 느낀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날 저녁집회 기도시간에 '자신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 쓰임 받고 싶은 사람은 일어나라'는 전도사님의 말씀에 저를 비롯한 캠프준비팀 친구들과 많은 청소년처 아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정말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심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짖는 아이들을 보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품으로 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처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캠프였지만 캠프를 준비하는 과정과 진행하는 동안 제가 더욱 주님을 가까이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캠프준비팀으로 섬길 기회를 주신 이길호 전도사님께 감사함을 표하며 이 모든 영광을 오로지 주님께 올립니다.

사랑의 쌀을 전합니다

2023년도 한해에도 하나님께서는 강남중앙침례교회를 은혜에 샘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가지가 담장 밖으로 넘어가는 풍성한 섬김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지난 1월 19일 리칭 아웃팀에서는 강남 영동새마을금고에서 쌀을 후원받아 설명절을 맞이하여 지난 1월 27일 포천 이주민 근로자교회 네 곳(송우 벤틀랑 베트남교회, 미안마선교 교회, 타이 포천 태국교회, 애양교회)에 사랑의 쌀(10kg, 65포)을 기증하고 왔습니다. 2023년에도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순종하고 앞장서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태원 전도사(Reaching Out)



포천 이주민 사역 봉사자 모집



- 기간 :** 건강검진(2,4,6,8,10,12월 / **둘째주 토요일**)
이주민 교회사역(3,5,7,9,11월 / **둘째주 토요일**)
- 봉사 :** 건강검진 사역 : 외국어 통역 및 도우미 봉사자
이주민교회 사역 : 노방전도, 교회보수, 음악교실(기타, 피아노, 드럼)
- 시간 :** 건강검진(am 6:30 - pm 2:00)
교회사역(**추후 공지**)



문의 : 장태원 전도사 (010-4717-6114)



MISSION 밀밭교회 정태원 목사



살롬!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원하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과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해 연말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기쁜 일은 신대원생인 전도사님이 한 분 오셔서 어린 영혼들을 섬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방치하다시피 하여 늘 마음이 아팠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셨습니다. 12월 4일 주일 오전 11시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이들의 예배라 이름도 밀밭키즈로 짓고 아이들 2명, 교사 2명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밀밭 키즈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양육할 수 있어서 성도들 모두 다 크게 기뻐했습니다. 아이들도 매주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밀밭키즈는 이제 세종시의 어린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 봉어빵 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많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전도에 참여해서 같이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며 봉어빵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매주 나눠주니 이제는 제법 단골이 생겼습니다. 아직 열매가

없지만 복음을 듣고 있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 주실 줄 믿고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날에는 청년 한 명을 군으로 파송했습니다. 김민제 형제라고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아직 믿음도 약하고 마음이 여러 걱정을 많이 하면서 입대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잘 생활하도록 성도들의 축복을 받으며 훈련소로 갔습니다. 이제 군에 파송한 형제가 돌아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말 추수감사주일과 성탄축하행사와 성탄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송구영신예배로 교회가 각자의 감사제목 5개와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 5개를 가지고 합심기도하며 함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밀밭교회가 올해에는 꼭 부흥 성장해 자립을 꿈꾸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늘 기도해주신 덕분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설 명절 즐겁게 잘 보내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형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살롬!

기도제목

- 1 밀밭키즈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게 하소서.
- 2 김민제 형제가 군 생활을 잘하고 사랑받고 무사하게 전역하도록 지켜 주소서.
- 3 봉어빵전도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 4 100명의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MISSION 폴란드 노아/샤론 선교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2022년 12월 15일에 폴란드 바르샤바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곳 폴란드 화교 교회에서 제공해준 숙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우선 청년대학부를 섬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 전체 모임에서 설교와 함께 성찬식을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이곳 교회에는 현재 캐나다 국적의 화교분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 안수를 받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모든 성찬과 침례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2월 19일에는 이곳 폴란드 침례교회에서 성탄절 연합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폴란드 침례교회, 중국인 교회, 우크라이나 교회, 베트남 교회가 연합으로 성탄절 행사를 했고, 행사 후에 폴란드 침례교회 식당에서 각 교회에서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12월 22일에는 이곳 중국인 교회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우크라이나 유치원을 방문하여 함께 성탄행사에 참여하고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12월 23일에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어린이들을 위한 성탄선물 약 600개정도를 포장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에는 폴란드 침례교회를 빌려서 중국인 교회 성탄절 이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약 150여명 정도가 참여했고, 중국인 성도들이 각자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와서 행사 후에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2023년 1월1일 제가 폴란드 바르샤바에 도착한 후 처음으로 이곳 중국인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설교 후에 매달 첫 주에 있는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오랜만에 중국어로 하는 설교라 살짝 긴장도 했는데 다행히 큰 어려움 없이 말씀을 전한 듯합니다. 우선 당분간 1달에 한번 전체 예배에서 설교를 하고 성찬식을 인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청년대학부를 담당하여 매주 금요일에 있는 청년대학부 모임을 섬길 것입니다. 이곳에는 중국에서 온 많은 유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힘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정착하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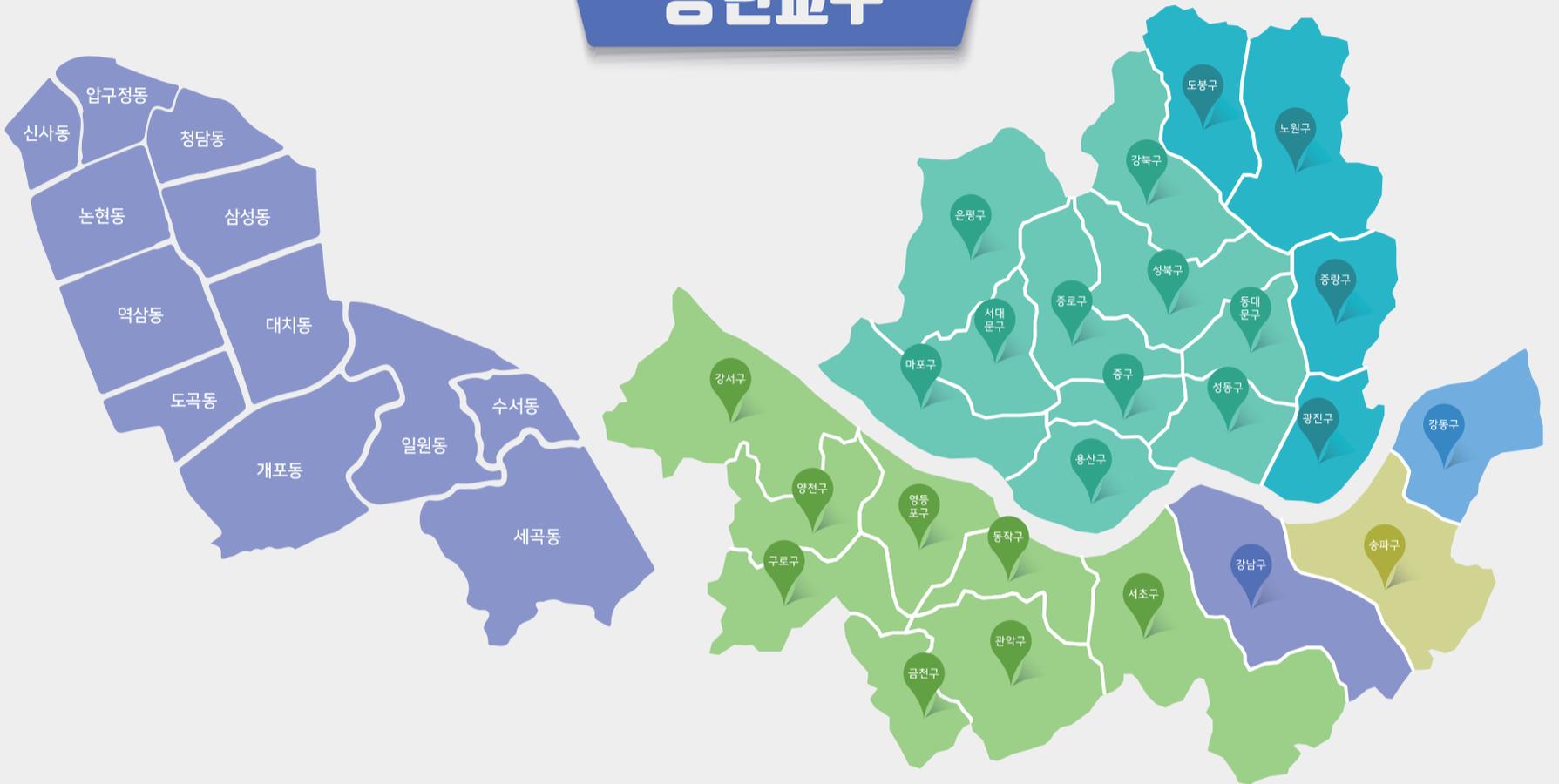
이곳에 있는 중국인 교회는 우크라이나 선교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이곳 바르샤바에 있는 2개의 우크라이나 교회와 연합하여 우크라이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크라이나 유치원에 현재 23명의 어린이가 있습니다. 저희 중국인 교회에서 23명의 어린이들의 유치원 비용 5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의 어린이가 늘어난 만큼 계속해서 비용의 50%를 감당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우크라이나 난민 선교 단체에서 부탁이 와서 성탄절 선물 600여개를 준비하여 전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교회들에게 발전기를 보내는 사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 1 성령충만함을 늘 유지하면서 사역을 할수 있도록
- 2 청년대학부 리더들이 잘 세워지고, 이곳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 3 3월 3일에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4월초에 가족들과 함께 폴란드 바르샤바에 들어와 정착해야 하는데, 비자와 이곳에 정착에 필요한 집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강남중앙침례교회 **목장** 한눈에 보기

장년교구



- 1교구** 권규택 목사
이영욱 / 임종현 장로
논현동
- 2교구** 홍지승 목사
양민 / 안성만 장로
청담동, 신사동, 압구정동
- 3교구** 안성권 목사
국태환 / 심홍근 장로
삼성동
- 4교구** 이근도 목사
김승호 / 전진옥 장로
역삼동, 대치동, 도곡동,
개포동 일원동, 수서동,
자곡동, 세곡동, 율현동
- 5교구** 이근도 목사
강대립 / 임병길 장로
서울북서지역) 강북구, 성북구,
성동구, 동대문구, 종로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고양시
- 6교구** 홍지승 목사
김성원 / 김종신 장로
서울북동지역)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 구리시,
하남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 7교구** 강윤호 목사
강성일 / 장태수 장로
서울남동지역) 송파구, 성남시, 용인시
광주시, 수원시, 안양시, 군포시, 안산시
- 8교구** 이윤섭 목사
김선학 / 김재도 장로
서울남서지역)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김포시, 인천시, 부천시

- 이음교구**
담당 : 이근도 목사
이홍영 집사
20~30대 부부
- 청장년교구**
담당 : 오명철 목사
이윤섭 장로
40대 싱글 남·여 성도
- 시니어교구 | 목양장로 : 김지옥 장로**
1교구 : 최용준 목사, 장태원 전도사
2교구 : 안성권 목사, 천상운 전도사
시니어 미니스트리는 70세이상의 성도님들이 참여하시는 사역입니다